

'나눔·연대 광주정신' 경상권 산불 피해 보듬는다

SOCIETY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복지단체 등 온라인 기부행렬...개인 SNS서 링크 공유 대학생 커뮤니티서 모금 활동 확산...인증 사진 첨부도

울산·경북·경남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로 26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민들의 온정 어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기부단체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차지,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중 카카오톡이거리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한국해비타트, 대한사회복지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위엑트 등 14개 기부단체와 함께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힘이 돼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댓글이 달릴 때마다 1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힘이 돼 주세요

요'라는 주제로 희망브리지와 함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A군은 "알바해서 모은 돈을 기부한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빠른 진화와 복구 작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댓글과 기부 인증 사진을 남겼다.

대학생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카카오톡 산불 기부 댓글 캠페인 링크와 기부 인증을 공유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같은 대학생으로서 자랑스럽다" "멋지다" "이게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이다"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개인 SNS를 통해서도 기부 인증 사진과 산불 피해 긴급 모금 링크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기부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5억2000만 원에 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부터 본사에 긴급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5개 지사와 협력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산불 피해지역에 1만9607점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에는 △긴급구호세트 774세트(1만1610점) △임시구호텐트 343점 △마음구호키트 187개 △담요 1670점 △기업 후원물품 5497점 등이 포함됐다.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복지원

센터 인력도 투입해 심리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피해 지역에 이동식차량, 회복지원차량, 이동사위차량, 재난대응차량, 냉동탑차 등 긴급구호차량을 투입,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카카오톡이거 치 산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총 69억7500여만원이 모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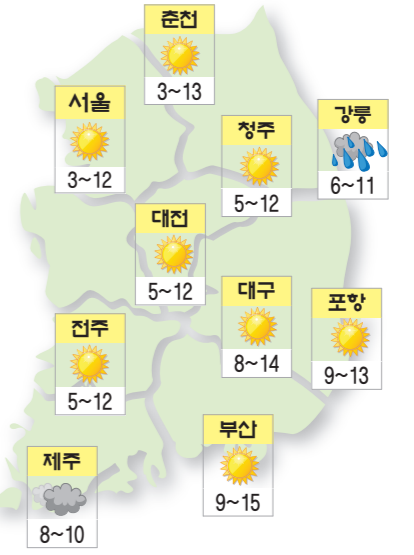
직접 기부금 64억7548만원과 함께, 댓글 51만8170개가 작성됐고, 카카오톡이 4억9146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네이버 해피빈 총 모금액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70억여원(참가자 27만여명)에 달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25 달맞이 05:38
☁️ 예보 18:50 달맞이 17:31



광주 5·18민주광장 분수대, 내달부터 운영 동구, 매주 화~일 '빛의 분수·음악분수' 공연

5·18민주광장 분수대 운영이 오는 4월부터 재개된다.

2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5·18민주광장 분수대는 4월1일 오후 7시30분 '음악분수', 8시15분 '빛의 분수'를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동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시설물 점검·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음악분수'는 매주 화·일요일 일 3회(자정 12시30분, 오후 7시30분과 9시30분), '빛의 분수'는 오후 8시15분에 운영된다. 특히 매주 금·토요일 저녁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18민주광장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의 분수' 시그니처 콘텐츠 공연(키네틱 조형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을 볼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지한다.

동구는 이번 분수대 운영을 재개하면서 충장축제를 비롯해 광주 국가유산 야행 등

행사와의 공연,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5·18민주광장 분수대는 지난 2022년 6월 '빛의 분수대' 개막 이후 시민의 호응을 얻으며 야간관광 명소가 떠올랐다. 2023년에는 분수대를 재정비하는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음악분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지난해는 4~10월 각 시간대별로 '빛의 분수'와 '음악분수'를 교차 운영해 동구만의 야간경관 브랜드를 구축하고,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택 정장은 "빛과 음악의 조화로 더욱 새로워진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관람객들이 광주의 환상적인 낮과 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동구, 공공시설 정비공사 현장방문 27일 광주 동구 월남동 주민미를 세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한 인택 동구청장이 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점검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사 무마 대가로 7억 쟁긴 변호사 징역 3년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130억원대 부실 대출·회령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해 7억원의 뇌물을 쟁긴 광주지역 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1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138억원대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주겠다고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원, 2억원 등 총 7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수사 무마 대가로 쟁긴 7억

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억 100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 쟁겼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병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38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 변호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

경찰관 흉기 습격자 실탄 사격·사망은 "정당방위"

광주경찰, 현장대응 적절성 조사...CCTV 등 분석 "초근접 하체 조준 어려움 판단... 적법한 직무수행"

경찰이 흉기로 공격하는 피의자를 권총 피의자를 실탄으로 좌 습격 한 동부경찰청이 '최근접거리(1m 이내)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 습격 피의자를 실탄으로 좌 습격 한 동부경찰청 남구대 소속 A경감(54)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10분 동구 금남로4가역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20대 여성 스토킹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흉기로 위협하는 B씨(51)를 실탄으로 사격했다.

A경감이 손 총탄은 B씨의 상체 부위에 맞았다.

총을 맞은 뒤에도 골목길을 돌아 금남공원 방향으로 20m가량을 달아난 B씨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제압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사망했다.

B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얼굴 등을 찔린 A경감도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아직까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기 사격으로 흉기 습격자 습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광주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과정과 적절성 여부 조사가 나섰다.

경찰은 물리적 행사 기준에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피부 이하 등 상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하체 부위를 조

준 사격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기동대 1팀은 흉기 습격자가 수차례 이어진 경고·투항명령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계속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흉기를 사용한 치명적 공격·부상 등의 상황을 고려해 때 총기 사용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A경감은 흉기 습격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뒤에도 계속되는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사용을 한 손으로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생명에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관련 규정을 따른 조치다"면서 "유족분들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패용을 기원하고, 정상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	5~11
목포	☀️	5~9
여수	☀️	7~13
순천	☀️	5~14
광주	☀️	4~14
광주	☀️	5~11
진남	☀️	5~12
진남	☀️	5~9
진남	☀️	6~13
진도	☀️	5~9

'수리 불만' 카센터로 돌진

차량 수리에 불만을 품고 카센터 관계자를 치러 폭행당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한 카센터에서 카센터 관리자인 50대 남성 B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질거리는 유전병인 '헤파타인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봄철 광주·전남 농기계 사고 빈발 '안전 주의보'

최근 5년간 823건 발생...매년 120명 부상 피해 전문가 "야간·단독 작업 위험...2인 이상 권장"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가동하다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봄철(3~5월) 농기계 사고가 823건(광주 44건·전남 77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61건(광주 10

건·전남 151건), 2021년 175건(광주 9건·전남 166건), 2022년 174건(광주 14건·전남 160건), 2023년 128건(광주 5건·전남 123건), 2024년 141건(광주 6건·전남 1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운기·트랙터 전복, 추락,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매년 봄철 1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농기계 사고 2604건(광주 2560건·전남 44건) 중 봄철에 발생한 사고는 32.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 2465명(광주 41명·전남 2424명) 중 709명(광주 14명·전남 695명)이 봄철에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농번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3월3일 전남 영광에서 50대 남성 A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또 지난해 5월20일 오전에는 전남 무



인군 몽탄면 논에서 70대 남성 B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눈을 뒤집는 로타리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장갑, 안전화, 방진 마스크와 같은 안전용품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회전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농기계 점검은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를 이동할 때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추운 겨

울 얼었던 땅이 녹으며 도로 일부가 무너진 곳 등은 위험한 만큼 진입 전 미리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농번기에는 장비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계 상태 점검이 소홀해지고,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눈두덩이 잘 보이지 않아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형광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시인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농기계 작업을 혼자 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가급적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